

## 2018 The Third Doctors 우간다 캠프

김현서

###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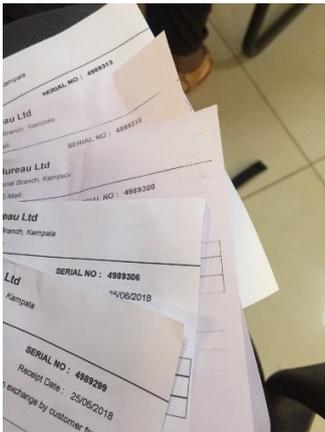
2018년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9일간 저는 노봉근 단장님, 정진욱 총무님, 김복주 선생님, 엄태영 씨와 팀을 이루어 The Third Doctors 대표단으로서 우간다를 방문하였습니다. 우간다 캠프 외에 The Third Doctors의 다른 사업 중 하나인 네팔 의료캠프에는 20~30명의 의사와 약사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대의 The Third Doctors 멤버들이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일정 기간 의료 캠프를 개최하고 현지인들을 진료해 줍니다. 그러나 우간다의 경우 진행 방향이 다릅니다. 몇 년 전 우간다에서도 네팔과 같이 직접 진료를 하는 의료캠프를 열었으나 이동 경비, 관세, 치안 문제 등 다양한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지원 방식을 바꾸었고, 현재는 The Third Doctors 회원들이 모금한 돈을 송금하거나, 그 돈으로 약품이나 의료기기를 구매,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The Third Doctors의 지원을 받아 우간다 내부에서 직접적으로 각 보건소와 고아원들을 도와주는 단체가 바로 Busonga Eliezah Titus를 리더로 하는 우간다 현지의 사설 의료지원단체 Real Health Uganda입니다. 이번 우간다 캠프 또한 Real Health Uganda의 초청으로 참여, 모든 일정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 2. 2018 우간다 의료 캠프 활동 사항

한국 출국일이 6월 22일, 귀국일이 6월 30이지만 이번 캠프의 정식 활동은 6월 25일 월요일부터 6월 28일 목요일까지 4일간 진행되었습니다. 6월 22일 출국하여 우간다에 23일에 도착하였으며, 23일과 24일은 주말이라 각 시설 뿐만 아니라 Real Health Uganda 직원들도 쉬는 탓에 활동은 25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29일은 우간다를 떠나는 날이었기에 28일이 마지막 활동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의 우간다 의료 캠프 활동 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1) 6 월 25 일 (월요일)

26일부터 28일까지 방문할 보건소와 고아원에 지원할 물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Real Health Uganda에 지원하기로 한 15000 달러를 환전소에서 실링으로 환전하였습니다. 이후 환전한 금액 중 이번 캠프에서 보건소를 다니며 나눠줄 약을 살 9,300,000 실링(약 2,400 달러)을 제외한 모든 지원금을 은행에 들러 새로 만든 단장님 명의의 Real Health Uganda 계좌에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약국에 들러 9,300,000 실링에 해당하는 약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이들은 저희가 일정 중 방문한 세 보건소에서 사전에 미리 Real Health Uganda에 요청한 물품들이었습니다. 약의 양이 워낙 많았기에 저희는 26일과 27일 각 보건소를 방문하기 전 약국에 들러 약을 가지고 가기로 결정하고 추가로 약국 측에 보건소별로 약을 분류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약을 구매한 후 Busonga 의 안내에 따라 문구점을 방문하였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문구류와 비타민 등도 3~4 박스 있었지만, The Third Doctors 에서 추가로 200 달러를 들여 28 일 방문할 고아원 아이들을 위한 문구류를 추가 구매하였습니다.



(2) 6 월 26 일 (화요일)

26 일 일정은 첫번째 보건소를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보건소 하나만을 방문하면 되었지만, 이동시간이 왕복 9 시간 정도 걸리는지라 아침 일찍 출발하였습니다. 저희 숙소가 위치한 Kampala 에서 2 시간 정도 차를 타고 Jinja 에 도착한 저희는 보건소를 함께 방문할 Real Health Uganda coordinator 와 합류했습니다. 이후 2 시간여를 더 숲 속을 헤치고 비포장도로를 달려 어느 한 시골 마을의 Ikumbya 보건소에 도착하였습니다.





약을 전달하기에 앞서 보건소 측에서 준비한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보건소 책임자, 마을 이장, 그리고 수많은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여 저희 팀과 약을 지원해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환영식 이후 보건소 내부를 둘러보고 운영 현황, 힘든 점 등을 물어보았습니다. 내부 시설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양호하였지만, 보건소 직원 7명 중 의사가 없다는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보건소 책임자도 정부지원만으로는 약과 의료장비, 보건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The Third Doctors 가 도와주어 고맙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첫번째 보건소에서의 공식적인 업무가 끝난 후 저희는 마을 아이들과 잠깐 시간을 보낸 후 다시 5 시간 가량 이동하여 숙소로 복귀하였습니다.



(3) 6 월 27 일 (수요일)

27 일에는 숙소 근처에 위치한 두번째와 세번째 보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오전 10 시경 약국을 둘러 약품을 챙긴 후 두 번째 보건소인 Maganjo Health Centre 에 방문하여 전달하였습니다. 보건소 내부 시설은 생각보다 열악했습니다. 이 보건소는 Kampala 도심에 위치한 공립 보건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은 직원 임금 지불밖에 없으며 작은 보건소 건물 내부에 기본적인 의료도구와 약품은 거의 없었습니다. 더불어, 보건소 총 책임자는 Maganjo Health Centre 를 지원하는 유일한 기관이 Real Health Uganda 와 The Third Doctors 라고 하였습니다. 공립 보건소임에도 정부 지원이 전무하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Maganjo Health Centre 를 방문하여 약품을 전달한 이후 다시 약국을 둘러 약품을 챙긴 후 세번째 보건소인 Nabweru Youth Health Club 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름 그대로 영유아를 집중적으로 진료하는 보건소였습니다. 다행이었던 점은 앞서 방문하였던 두 보건소보다 시설 및 의료기구도 양호하였고 약품도 제법 저장되어 있었으며 보건소의 규모가 커 수십명의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Ikumbya 보건소, Maganjo 보건소와는 달리 의사도 두 명이나 있었습니다. 이 보건소에서 역시 앞서 방문한 보건소들과 마찬가지로 약품을 전달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내부 시설 및 운영 현황 등을 돌아다니며 조사하였습니다.



(4) 6 월 28 일 (목요일)

28 일 오전에는 호텔 회의실에서 저희 The Third Doctors 파견 팀 5 명과 Busonga, Ikumbya 보건소에 동행하였던 Real Health Uganda coordinator, 각 보건소 대표 격 인사들, 기타 Real Health Uganda 관계자들이 모여 미팅을 가졌고, 저는 이 미팅에 단장님 통역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단장님과 Busonga 가 차례로 나서 스피치를 통해 Real Health Uganda 와 The Third Doctors 의 협력관계와 우간다 의료지원 사업에 관하여 소개하시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모금한 돈을 각 보건소에서 투명하게, 필요한 서민들을 위하여 잘 써 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후 미팅에 참석한 보건소와 Real Health Uganda 관계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팅이 끝난 후 정오 무렵 숙소를 출발하여 저희는 첫번째 고아원을 방문하였습니다. 2 년전 The Third Doctors 의 우간다 방문 시 지원하였던 고아원이라 하였습니다. 방문한 첫번째 고아원의 상태는 예상보다 훨씬 열악하였습니다. 도로에서 한참을 작은 골목을 지나야 도달할 수 있었던 이 고아원의 경우 물과 전기 등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으며 낡은 방 하나에 열댓 명의 아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고아원에 물품을 전달한 저희 팀은 한시간 여를 이동해 두번째 고아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곳에는 150 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었고, 아이들의 위생상태나 고아원의 시설이 양호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된 사실에 의하면 그 건물은 낮에 아이들이 수업을 하거나 모여 노는 공간이며, 다른 곳에 위치한 숙소의 상태는 별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두번째 보건소에서 역시 보건소 소장과 아이들의 상태와 보건소 현황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가져온 물품을 전달하였습니다.



### 3. 총평, 개인적인 느낌

이번 우간다 캠프 대표단의 공식적인 역할을 다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금 15,000 달러 우간다 실링으로 환전 후 약 9,300,000 실링 정도의 약 구매, 남은 지원금 은행에서 단장님 명의의 Real Health Uganda 계좌 개설 후 입금, 고아원 배분 추가 물품 구매, 보건소 세 군데 방문 및

의약품 전달, Real Health Uganda 관계자 및 보건소 관계자들과의 미팅, 고아원 두 군데 방문 및 지원 물품 전달.

이전까지는 The Third Doctors 대표단의 공식 업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서술하였다면, 지금부터는 간략히 이번 우간다 캠프를 통하여 제가 느낀 점을 서술하고자 합니다. 이번 우간다 캠프를 통하여 제가 우간다 현지 보건상태에 대하여 깨달은 점은 크게 두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보건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이 거의 없으며 국가적인 사회 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공립 보건소들조차 직원 임금을 제외한 의약품 및 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굉장히 적거나 없는 곳도 허다하였으며, 대부분의 지원은 Real Health Uganda, The Third Doctors 와 같은 단체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픈 환자들이 눈 앞에 있어도 약이 없어 치료하지 못하는 보건소의 상태에 몹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간다 캠프 중 제가 느낀 점 두번째는 우간다의 빈부 격차가 극심하며 영유아의 보건 상태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먹고 살기조차 힘들어 약을 구하고 치료한다는 것을 상상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억지를 부리고 트집을 잡으며 서민들을 갈취하는 공무원들의 횡포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각 보건소와 고아원을 방문하며 신발이 없어 맨발로 돌아다니는 아이들, 상처가 나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비단 우간다만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번 우간다 캠프를 통해 저는 제가 방문한 보건소와 고아원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개발도상국의 빈곤, 빈부격차, 열악한 사회복지 및 보건 상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